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은 광주의 자연과 교통, 역사 속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음악적 언어로 번역한 도시 데이터 기반 창작 프로젝트 ‘광주의 호흡’을 선보인다. 사진은 하건, 김거봉, 서영교 등 참여음악가들이 각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국악 요소를 결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나랩 제공>

빛고을 속살이 전하는 도시의 숨결 “음악이 되다”

국악콘텐츠그룹 나랩, 2일 ‘광주의 호흡’ 음원 발매·쇼케이스 공연

무등산·광주천·518번 버스 데이터 기반...새로운 듣는 경험 제안

지속가능 창작 프로젝트 목표, 음악·아트필름 통한 아카이브 구축

광주의 자연과 교통, 역사 속 데이터를 음악으로 듣는 이색적인 창작 프로젝트가 시민을 만난다.

음원과 아트필름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도시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방식으로 ‘듣는 경험’을 제안한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은 2일 도시 데이터 기

반 창작 프로젝트 ‘광주의 호흡’의 음원 발매와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의 호흡’은 광주의 교통·유동·환경·지형 등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리듬과 음색, 박자와 음악적 구조로 변환하는 창작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주제는 무등산, 광주천, 518번 버스

등이다.

참여 음악가들은 광주를 품고 있는 무등산의 고도와 지질, 식생의 변화,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광주천의 물과 땅, 다리의 구조, 그리고 518번 버스가 이동하는 노선과 도심의 지형·교통 흐름을 각각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해 장단과 호흡, 시김새 등 국악의 핵심적인 음악 요소를 현대적인 데이터 패턴과 결합했다.

선보이는 작품은 광주천 24.4km를 따라 흐르는 물과 땅, 다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의 흐름과 속도를 음악으로 재현한 하건의 ‘2440’, 해발 1,187m 무등산의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지질의 특성과 식생태계를 기반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과 자연의 움직임을 음악으로 표현한 김거봉의

‘1187’, 518번 버스 운행 노선과 도심의 지형, 교통의 흐름을 바탕으로 광주가 품고 있는 역사와 현재의 도시 풍경을 음악 위에 겹쳐낸 서영교의 ‘0518’ 등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하나의 예술적 기록으로 남긴다는 특징이 있다.

예술가들이 도시의 데이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순간부터 이를 음악으로 변환하고, 창작과 합주, 녹음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아트필름은 도시와 음악,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하나의 영화적 서사로 담아낸 독립적인 예술 기록물의 가치를 가진다.

‘광주의 호흡’은 일회성 창작에 머무르지 않

고, 향후 다른 지역과 계절, 새로운 도시 데이터로 확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창작 모델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도시 데이터는 숫자와 정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도와 자연의 변화, 도시가 축적해 온 시간이 함께 담겨 있다”며 “‘광주의 호흡’을 통해 시민들이 익숙했던 광주를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만나고,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를 ‘듣는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의 호흡’ 음원은 2일 오후 12시 공개되며, 같은날 오후 7시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 음악과 아트필름으로 완성된 프로젝트의 결과를 선보인다.

/오복기자

하나된 전남광주...통합의 하모니 울려 퍼진다

‘제6회 전남광주소년소녀합창제’

오는 5일 7개 합창단 300여명 참여

지역 문화 교류·화합 실현 기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축하하고 문화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소년소녀합창단(사진)을 비롯해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등 300여명은 순수한 목소리를 통해 지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전당은 오는 9월 5일 오후 4시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6회 전남광주소년소녀합창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창제는 지난해까지 열린 ‘광주광역시소년소녀합창제’를 계승·확대 한 축제로, 광주·전남이 통합된 이후 처음 열리는 소년소녀합창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축제를 지역을 아우르는 대표 청소년 문화예술 브랜드로 발전시켜, 지역 간 문화 교류와 화합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합창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Fiat Domini) 소년합창단,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광주과랑새합창단,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한다. 여기에 통합을 축하하기 위해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특별 출연해 총 7개 단체, 300여명이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단체의 개성과 높은 수준의 음악성을 선보이며, 청소년 합창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은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희망의 노래(Song of Hope)’와 ‘별 헤는 밤’으로 시작된다. 이어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Fiat Domini) 소년합창단이 ‘노 록스 어크라이밍(No Rocks A-Cryin)’과 ‘싱 싱 싱(Sing Sing Sing)’을,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이 아프리카 민요 ‘아야 응게나(Aya Ngena)’와 ‘두껍아 문지기’를 부르며 흥을 돋운다.

오준혁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지역민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앞으로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브랜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레바논 전통 무용 ‘답케’ 남도 무대

국립남도국악원, 5일 ‘아랍문화제’ 개최

서로 다른 전통예술로 문화적 거리 좁혀

중동 순회공연을 펼치며 문화외교 사절단 역할을 해온 국립남도국악원이 레바논 무용단과 함께 예술적 화답을 나누는 무대를 펼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한국·아랍소사이터티와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와 국립국악원이 후원하고 ‘제19회 아랍문화제’가 레바논을 대표하는 ‘하야킬 바알벡(Hayakel Baalbeck)’ 무용단을 초청해 한국과 레바논의 음악과 춤, 전통문화를 한자리에 소개할 기회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9월5일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진행된다.

‘하야킬 바알벡’은 지난해 12월 레오 14세 교황의 레바논 방문 당시 환영 행사에서도 전통 공연 ‘답케’(Dabke)를 선보여 세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답케는 레바논을 비롯해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레반트 지역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대표적인 전통춤으로 여러 사람이 역동적인 리듬에 만들어내는 군무가 특징이다.



국립남도국악원

이번 무대에서는 아랍 현지에서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삼도설장구’, ‘부채춤’, ‘대동놀이’를 선보이며 레바논 무용단과 예술적 화답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과 아랍연맹 회원 22개국의 정부 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해 양 지역 간 다방면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자 2008년 설립된 민관합동기구인 한국·아랍소사이터티의 최성수 사무총장은 “이번 문화는 한국의 전통과 아랍의 이국적인 춤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국민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레바논의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복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